

지역 작가 손길로 환해진 창동 골목

이미지 기자 image@idomin.com

2018년 04월 05일 목요일

창동예술촌 창동희망나무에서 출발해 우신장여관으로 이어지는 길이 환해졌다. 늘 악취가 심해 사람들의 발길조차 없던 후미진 골목. 최근 윤형근, 정순옥, 임수진, 이권순, 변기화, 정채령, 김경현 등 여러 작가가 창원시 도시재생 사업의 하나로 이 골목에 벽화를 그렸다. 산뜻한 색이 더해지고 수백 명 시민의 염원을 담은 3·15 가족나무가 붙여졌다. 5일 오후 5시, 이를 알리는 행사가 창동예술촌에서 열린다.



창동예술촌 창동희망나무에서 출발해 우신장여관으로 이어지는 길이 환해졌다. 늘 악취가 심해 사람들의 발길조차 없던 후미진 골목. 최근 윤형근, 정순옥, 임수진, 이권순, 변기화, 정채령, 김경현 등 여러 작가가 창원시

2018. 4. 5.

경남도민일보

도시재생사업의 하나로 이 골목에 벽화를 그렸다. 산뜻한 색이 더해지고 수백 명 시민의 염원을 담은 3·15 가
족나무가 붙여졌다. 5일 오후 5시, 이를 알리는 행사가 창동예술촌에서 열린다. /이미지 기자 image@

<저작권자 © 경남도민일보 (http://www.idomin.com)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>

이미지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



이미지 기자

image@idomin.com

2014년 7월부터 지역 문화 소식을 전합니다:) 전시와 문화재, 맛이 중심입니다 깊이와 재미 둘 다 놓치지
않겠습니다:D 소통하겠습니다:)